
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	보 도 자 료	
		배포 일시	2008. 8. 3(월) / 총 8매(본문 5, 붙임 3)
담당 부서	신도시개발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동호, 사무관 김성호, 주무관 양성모 • ☎ (02)2110-8308, 6263, 6264 ppul@mltm.go.kr
	주택정비과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임태모, 사무관 배소명 • ☎ (02)2110-8266, 6240 baesom@mltm.go.kr
	공공주택건설 추진단	담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권상대, 사무관 양희관 • ☎ (031)436-8931, 8943 yanghg@mltm.go.kr
보 도 일 시		2009년 8월 4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통합디자인 체계 구축으로 도시디자인 확 바뀐다

- 가로·공원·광장 등의 통합디자인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-
- 특별계획구역 등을 통한 디자인 특화로 도시이미지 강화 -

□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여 편리하면서도 품격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통합 공간환경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 참여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.

-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대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뉴타운, 보금자리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사업방식(공공/민간/혼용개발), 개발규모 등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게 운영 가능하도록 관련법령 및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먼저, 통합 공간환경디자인*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사업 단계에 따라 개별 시설별로 분리설계되던 방식을 입체적 공간계획을 총괄하는 『공간환경기본계획**』으로 통합 시행하여 통일되고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.

* **공간환경디자인** :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와 가로·공원·광장 등의 공공 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규모, 위치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함

** **공간환경기본계획** :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, 가로계획, 조경 계획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각종 계획을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창의적 특화전략을 바탕으로 “입체적 공간계획”으로 통합

- 예를 들면, 착공 전 도로, 가로시설물, 광장, 교량 등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 설계를 통합·조정하면 연속적이고 산뜻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.



<시설별 분리설계 사례>



<통합디자인 사례 - 마쿠하리 베이타운>

< 예시 :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범위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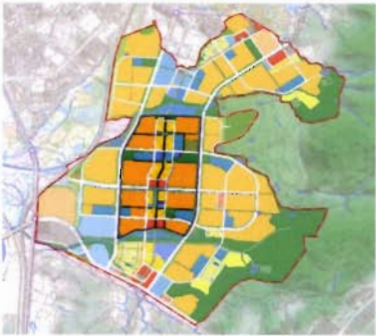
구 분		범 위
공공 공간		주요 가로공간(주요 도로와 연결 부지 포함), 주차장 등
		광장, 공공공지, 공원, 가로녹지(완충, 경관녹지) 등
		하천 및 저류지, 생태수로 등
공공 시설	공공건축	공공청사·문화시설, 학교, 파출소, 소방서, 우체국 등
	특수구조물	옹벽, 교량, 지하차도, 입체형 보도육교 등
	옥외 가로 시설물	방호울타리, 가로등, 방음벽, 정류소 시설물, 자전거보관대, 주차안내 표지판 등
	교통 시설 편의 시설 녹지 시설	공중화장실, 벤치, 휴지통, 음수대 등
		가로수 보호대, 가로 화분대, 가로 녹지대, 분수대 등

-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총괄계획가(Master Planner, MP)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참여제도도 개편된다.

○ 현재 4개 분야(도시계획, 교통, 건축, 환경)인 MP위원회를 확대하여 **디자인전문가(도시설계, 경관, 공공미술 등)를 사업단계에 맞춰 보장**하고, 공간환경디자인을 총괄할 **도시디자인코디네이터(Urban Design Coordinator, UDC)** 제도를 **단계적으로 도입**할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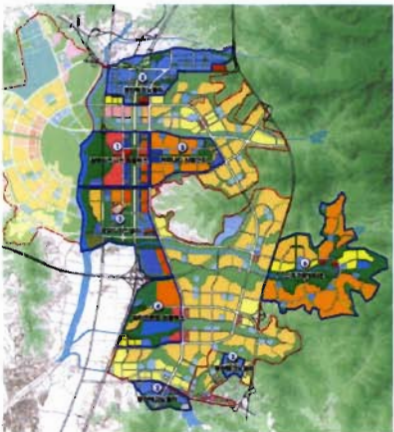
○ 또한, 신도시에 **특별계획구역***을 **활성화**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공모에 당선된 전문가가 해당구역 **총괄건축가(Master Architect, MA)**로 위촉되어 **디자인을 총괄**할 예정이다.

* **특별계획구역** :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지역에 설정



구분	면적 (천㎡)	주요도입시설
트렌젯물 시범단지	1,109	녹색교통, 연도형 특화거리, 문화/예술/쇼핑 콘텐츠, 신주거공간, 커뮤니티광장, 휴먼링

< 예시 : 위례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>



구분	면적 (천㎡)	주요도입시설
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	1,506	복합환승센터, 글로벌기업 본/지사, 컨벤션센터/호텔 등
동탄 테크노밸리	2,205	첨단산업/연구소/벤처기업 복합물류단지, 외국인주거단지
문화 디자인밸리	2,047	문화콘텐츠/디자인관련기업/전문교육시설, 예술인마을 등
워터프론트 콤플렉스	1,358	스포츠센터, 전문아울렛몰, 호수공원/문화시설 등
커뮤니티 시범단지	1,066	연도형 특화거리, 열린학교/특성화학교/학원가
신주거 문화타운	3,355	탄소중립 시범단지, 중저밀아파트, 한옥마을 등

< 예시 : 동탄2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>

□ 전문가 참여제도 개편과 함께 MP제도로 운영 중인 설계 자문회의는 특별계획구역 MA 등이 참여하는 **종합 설계조정회의**로 개편되어 **디자인리뷰(Design Review)** 체계가 강화된다.

□ 이러한 공간계획의 제도적 정비는 그간 신도시, 뉴타운 등 도시개발 및 재개발과정에서 **학계 및 실무전문가의 지속적 요구를 반영**하여 추진하게 되었다.

○ 또한, 향후 대한주택공사, 한국토지공사, 지자체, 지방공사, 민간사업자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이 구역별로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하는 **공동사업시행 사례의 증가**가 예상되어 도시 전체의 **일관되고 통합적인 계획시스템의 필요**에 의한 것이다.

□ 본 방안은 신도시의 경우 빠르면 8월중 『**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**』과 『**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**』을 개정하여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

○ 공간환경기본계획은 신도시별 사업추진 단계에 맞춰 수립하게 되며 새로 도입된 **MA제도**는 위례와 동탄2 신도시부터 시작하여 추진 중인 신도시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.

□ 도시재정비촉진지구(뉴타운)는 『**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**』을 개정하여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의 통합설계를 유도하고

○ 도시재정비위원회에 **도시디자인 전문가를 포함**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**보금자리지구**는 현재 『**보금자리주택 계획기준**』을 마련 중으로 통합디자인 운영체계와 다양한 전문가 참여제도를 통하여 **도시디자인을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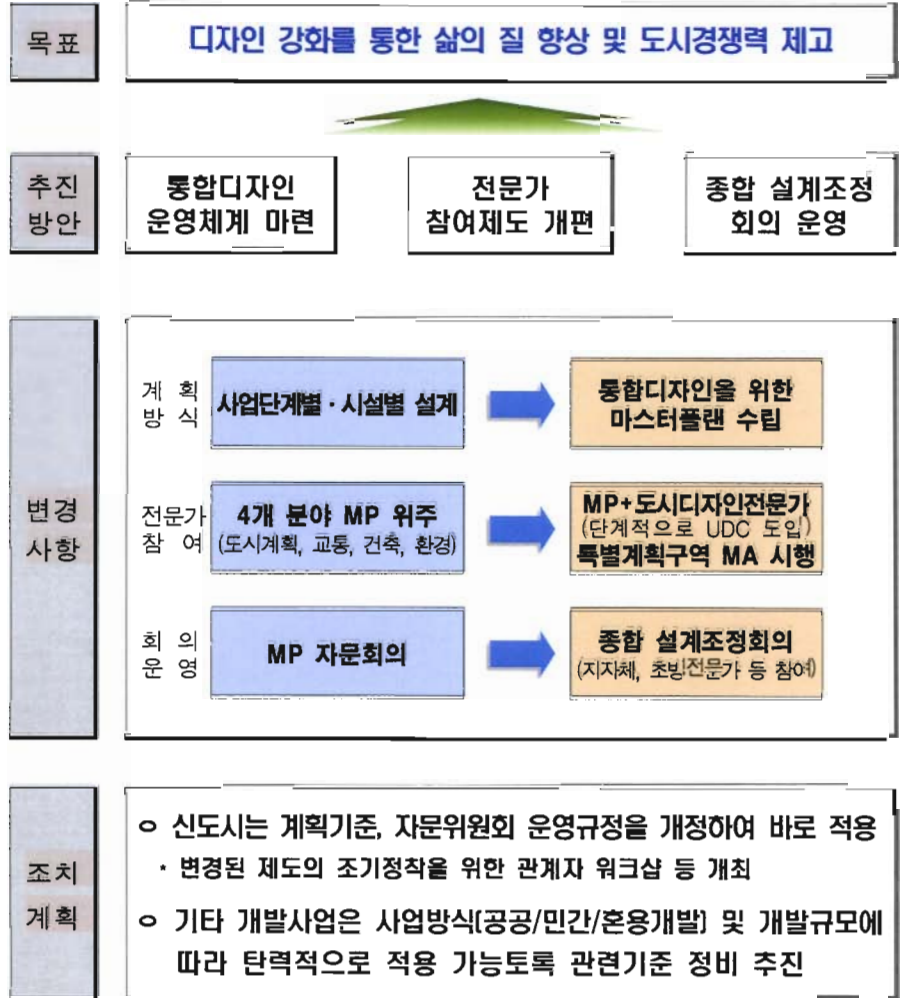
□ 이와같이 통합된 공간환경디자인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**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**과 앞으로 거주할 주민들 **삶의 질 향상**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또한, **디자인리뷰 체계 강화**를 통하여 공간환경디자인과 관련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통합·조정함으로써 **잡은 설계 변경 및 시공과정에서의 중복을 방지**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.

- 붙임 : 1.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방안
2. 관련 참고사진

붙임 1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방안

□ 추진방향





<일본 고베 HAT고베의 가로경관>



<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 외관 -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Eastern Harbour >



< 독일 포츠담 키르히스타이거펠트(kirchsteigfeld)의 가로경관 >



< 호수공원과 일체화된 주거지 계획 - 덴마크 코펜하겐 에게비에르가르트(Egebjerggard) >



← <주거동과 색상 등 디자인이 조화되지 못한 단지입구 상가시설>



<주거동과 색상 등의 조화를 통하여 통합디자인된 옥외 주차건물 - 일본 오사카 센리 뉴타운> →